

청소년기의 또래애착, 자존감, 삶의 만족 사이의 종단적 관계

황매향(黃梅香)

최희철(崔喜喆)

임효진(林孝璉)*

논문 요약

이 연구는 한국아동청소년 중1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개인의 행복(삶의 만족)과 밀접히 관련되는 개인 내적 변인인 자존감과 환경 변인인 또래애착의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에 중1 시점(1차년도)과 중3 시점(3차년도) 사이의 2년 간격, 그리고 중3 시점(3차년도)과 고2 시점(5차년도) 사이의 2년 간격에서 또래애착, 자존감, 삶의 만족 사이의 종단적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자기회귀 교차지연 효과 모형을 적용한 구조방정식 모형을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중학교 1학년 시기의 또래애착, 자존감, 삶의 만족은 고등학교 2학년 시점까지 5년간의 시간 동안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었고, 둘째, 세 변인간의 인과적 관계 중 또래애착이 자존감으로 가는 교차지연효과 계수는 이전 시점에서 또래애착이 높을수록 이후 시점의 자존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삶의 만족으로 가는 교차지연효과 계수 역시 이전 시점에서 또래애착이 높을수록 이후 시점의 삶의 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자존감에서 또래애착으로 가는 교차지연효과 계수는 이전 시점에서 자존감이 높을수록 이후 시점의 또래애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자존감에서 삶의 만족으로 가는 교차지연효과 계수는 이전 시점에서 자존감이 높을수록 이후 시점의 삶의 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삶의 만족에서 또래애착 및 자존감으로 가는 교차지연효과 계수는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주제어 : 청소년, 또래애착, 자존감, 삶의 만족, 자기회귀교차지연 모형,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I. 서론

우리나라 아동 및 청소년들이 행복하지 못하다는 증거가 계속 보도되고 있다. 예를 들면, OECD 국가 중 우리나라 학생들의 행복도는 계속 최하위를 기록하다가 7년 만에 최하위를 탈출했지만 여전히 하위권이다(염유식, 김경미, 이은주, 이승원, 2015). 또한 청소년 사망원인 중 꾸준히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원인이 자살(통계청, 2015)이라는 통계결과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전반적 삶이 우려할 만한 문제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교육부는 매년 「학생 정서행동특성 검사」를 실시하고 위험수준에 있는 학생들에 대한 조력에 힘쓰고 있지만, 우리나라 학생들이 보다 행복해 질 수 있도록 교육하기 위해 가정, 학교, 사회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에 대한 탐구가 더욱 요구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최근 들어 미국심리학회는 긍정심리학의 관점에 입각하여, 단순히 부적응의 해소를 통해서만 행복 향상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고, 오히려 행복을 비롯한 긍정적 정서를 높여 이를 통한 삶의 만족감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 학생들의 행복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부적응적인 '문제'에만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행복' 자체의 증진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그러나 학생들의 행복은 어떤 요인에 의해 예언될 수 있고, 또한 학생들의 행복은 어떤 발달 영역과 밀접히 관련되는지 그리고 이와 같은 행복감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청소년의 행복을 연구주제로 삼아 그 관련 변인 및 변화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주관적 행복이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한 접근은 크게 상향이론과 하향이론으로 구분할 수 있다. 상향이론은 삶의 경험이 행복을 결정한다고 보기 때문에 외부사건 혹은 상황이 삶의 경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주로 살핀다(구재선, 김의철, 2006). 즉, 상향이론은 생활 속에서의 긍정적 경험과 정서를 통해 개인의 기본욕구를 만족시키면 행복할 것이라고 가정한다(Diener, Suh, Lucas, & Smith, 1999). 일련의 연구자들은 삶의 만족을 형성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탐색하는 것을 넘어서 삶의 전반적 혹은 특정한 영역에서 만족하는 것이 어떤 심리적 적응이나 삶의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하여 탐색해 왔다(구재선, 2009; 최희철, 황대향, 2010; Argyle, 1999; Veenhoven, 1988). 예를 들어 Veenhoven(1988)은 삶의 만족과 여러 관련 변인의 관계를 살핀 후에 삶에 만족할수록 더 열정적으로 삶에 참여하게 되고 다양한 사회적 관계가 증가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반면, 하향이론은 개인의 안정적인 내적 경향성(예: 성격)이 사건이나 환경을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방식으로 인식 또는 경험하도록 돕기 때문에 성격적 특성이 주관적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이를테면 성격적 특징 중 외향성이 높을수록, 신경증이 낮을수록, 자존감이 높을수록, 낙관적일수록 더 행복하다는 연구결과가 있다(구재선, 김의철, 2006; Diener et al., 1999).

주관적 행복에 관한 상향이론과 하향이론의 관점은 모두 지지받고 있어, 어느 한 쪽을 채택하기보다는 모두를 수용해야 할 관점으로 여겨진다. 즉, 삶의 만족도를 예언하는 변인과 삶의 만족도가 예언하는 변인들 사이에는 교호적(reciprocal) 상호작용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이들 변인들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가 횡단연구이며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는 종단적 변화를 분석한 연구를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특히 청소년 시기의 행복과 밀접히 관련되었다고 보고되어 온 자존감과 또래애착을 중심으로 변인들간의 인과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또래애착

애착(attachment)은 개인이 자신과 가까운 사람에 대하여 느끼는 정서적 유대관계를 의미하며(Bowlby, 1980), 자신과 타인, 그리고 이를 포함한 대인관계에 대한 인지적인 표상을 형성하게 한다. 예를 들어 부모와 안정적인 애착이 형성된 자녀는 자신을 의미있고 가치있는 존재로 여기고 긍정적인 자아상을 확립하게 된다. Bowlby는 전생애발달 관점에 입각하여 청소년과 성인기에는 가족 외의 집단, 단체 등에서 사회적 관계를 넓혀감에 따라 부모 외에 또래와 교사에 대한 애착 정도가 중요성을 가지게 된다고 하였다. 특히 청소년기의 또래애착은 유아나 아동기에 부모자녀 관계에만 의존하던 경향성에서 벗어나 친구와의 관계가 보다 강조됨에 따라 점차 중요성을 더하게 된다. Weiss(1982) 역시 청소년들은 정서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친구와 보다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다고 하였고, 청소년들이 부모로부터 심리적으로 독립하려는 욕구와 함께 친구들과 더 많은 시간을 공유함에 따라 또래애착의 수준이 높아진다(주은지, 2010). 유아기와 아동기 초기에 주 양육자와의 애착이 신뢰롭고 일관성있게 지지받는 관계로 이어지면 이후 부모 이외의 타인과의 그러한 관계가 기대되고 유사한 애착양식이 형성되기 쉽다. 청소년기에는 사회적, 애정적 지지를 받게 되는 또래와의 관계에서 부모에게서 느꼈던 친밀감을 경험하게 되며, 따라서 가까운 또래에게 받는 신뢰와 지지관계는 애착형성에서 부모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Bartholomew & Horowitz, 1991; Hazen & Shaver, 1987). 이 시기에는 여전히 부모가 중요한 애착의 대상이기는 하지만, 때로는 친구에 대한 애착이 부모에 대한 애착을 대신할 수 있다고 한다(장휘숙, 1997).

청소년기에 접어들어 또래관계가 점차 중요해지면서, 또래애착이 다양한 적응 또는 부적응의 출발점이 될 수 있는데, 여러 경험적 연구를 통해 또래애착의 영향력이 확인되고 있다. 또래애착

은 자존감, 만족도와 같은 심리적 건강이나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옥정, 1998; Armsden & Greenberg, 1987; Batgos & Leadbeater, 1994), 학교생활(김경숙, 박미금, 1999; Lapsley, Rice, & Fitzgerald, 1990)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보고되었다. 예를 들어, 지지적이고 친밀한 친구관계를 유지하는 청소년들이 그렇지 못한 청소년들보다 심리적, 사회적 적응 및 학업성취도가 높게 나타난다고 한다(류경희, 2003). 반면, 또래로부터 거부나 비일관적 지지를 경험했던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 보다 비행의 경험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다(Barnow, Lucht, & Freyberger, 2005).

2. 자존감

자기존중감(self-esteem) 또는 자존감은 자신의 가치나 능력에 대한 태도, 평가, 감정(Harter, 1983)을 말하며, 자신이 소유한 특질들에 대한 가치평가가 반영된 전반적인 자기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초기에 Rosenberg(1965)는 자존감을 “어떤 내적 기준이나 기대와 비교하여 자신의 능력을 판단하는 자아개념의 일부로서 하나의 특별한 객체 즉 자아에 대한 긍정, 부정적인 태도”라고 정의하였다. 청소년기 긍정적인 자존감의 형성은 자기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여 이후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기능적 수행과 적응적 생활을 위해 꼭 필요한 발달과업이다. 긍정적인 자아를 소유한 사람은 삶에 대해 보람이나 희망과 같은 긍정적 정서를 더 많이 느끼고, 정직성과 책임감과 같은 바람직한 특질을 개발하고 대인관계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관계를 맺게 된다(박은민, 2010).

청소년기의 자존감은 특히 학교에서의 학업성취도(유경훈, 2013; Demo & Savin-Williams, 1983), 또래관계(박미란, 이지연, 2007), 학교적응과 대인관계(김희진, 최장원, 이지현, Atterraya, 2012) 등과 유의한 관계를 보이며, 낮은 자존감은 학교부적응, 자기비하적인 행동이나 우울과 불안 및 비행 등의 원인이 된다고 보고되었다(민병수, 1991; 이경은, 1998; 이석형, 2007).

3. 삶의 만족

삶의 만족(life satisfaction)이란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 또는 행복을 구성하는 하위요소(Diener, 1994)로 연구되어 왔으며, 주관적 안녕감은 자신에 대한 느낌(삶의 만족) 그리고 현재의 정서적 상태(긍정, 부정)에 대한 느낌으로 구성된다고 한다. 이때 전자인 자기 자신을 어떻게 느끼는가 즉 자신의 현재의 삶과 이상적인 삶의 모습과의 차이에 대한 개인의 인지적인 판단이 중요하게 여겨진다. 따라서 개인이 평가하고 있는 전반적인 삶의 질(quality)은 객관적이고 사회적인 지표들로 정의하기 어렵다.

우리나라 학생들의 삶의 만족도는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부터 점차 감소하는 경향이 있으며(임미향, 박영신, 김의철, 2006; 임선아, 임호진, 2015), 이는 학업성취나 입시 등과 관련된 심리적 부담 및 스트레스에서 비롯된다고 여겨진다. 삶의 만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대체로 심리적, 정서적 상태와 같은 개인적 요인뿐 아니라 인구사회학적 배경, 가족, 학교, 지역사회와 같은 환경적인 요인들까지 포괄할 수 있다(곽수란, 2007). 사회경제적 위치와 같은 환경적 요인들도 청소년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Sheck, 2005), 학업수행을 비롯한 학교적응, 자존감, 대인관계(부모, 또래) 등이 청소년 삶의 만족에 보다 중요한 관련 변인으로 간주되고 있다(Huebner, Funk, & Gilman, 2000).

4. 또래애착, 자존감, 삶의 만족의 관계

대체적으로 청소년들의 또래관계가 좋을수록 스트레스 수준이 낮아지고(한종혜, 박성옥, 이영환, 1997), 또래관계가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박병선, 배성우, 2012). 일례로, 또래애착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한영수와 송원영(2012)의 연구에서는 자아탄력성이 또래애착과 삶의 만족 간의 관계를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또래와의 긍정적인 애착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문제상황에 유연하고 적응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이 강화되어 삶에 대한 만족감을 얻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한영수, 송원영, 2012).

외국의 연구에서도 이같은 결과가 보고되는데, 또래관계를 안정적으로 지각한 집단일수록 생활만족도가 높다고 보고한 Ma와 Huebner(2008)의 연구결과가 있으며, Laible, Carlo와 Raffaelli(2000) 역시 또래애착이 심리적 건강상태(만족감)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구지은(2000), 이진아(2007) 등의 연구에서는 교사나 친구의 지지가 높으면 자아탄력성과 긍정적인 정서경험이 높아지고 이에 학교적응과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하였다. 종합하면 긍정적인 또래관계나 또래애착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삶의 만족에 바람직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래애착은 또한 자존감에도 유의한 관련이 있다. Greenberg, Siegel과 Leitch(1983)는 부모애착과 또래애착이 자존감과 삶의 만족에 유의한 정적 효과를 미치고 있음을 보고하였는데, 부모애착의 설명력이 또래애착의 설명력보다 컸다고 한다. 또한 Paterson, Prior와 Field(1995)가 Rosenberg(1965)의 자존감 척도를 사용하여 13세부터 19세까지의 뉴질랜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또래애착보다는 부모애착이 자존감과 유의한 관련을 보였다. 반면 Armsden과 Greenberg(1987)는 반대로 또래애착이 부모애착보다 자존감과 삶의 만족을 더 크게 예측했다고 보고하였다. 회귀분석을 사용한 이러한 연구들과는 달리 Wilkinson(2004)의 연구에서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검증하여 부모애착보다는 또래애착이 자존감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

주었는데, 이 연구결과 부모애착은 또래애착을 통해 자존감 형성에 유의한 효과가 있었다고 한다. 또한 자존감이 또래애착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에 의하면, 청년기 초기의 자존감은 이후 대인관계(친구, 동료)의 친밀감과 중요도를 높여주고 관계에 있어서 불안함이나 갈등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Neyer & Asendorpf, 2001).

자존감은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삶에 대한 자기평가와 유의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자존감이 높으면 삶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유경훈(2013)의 연구에서도 자존감과 삶의 만족도의 상관관계가 .59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 둘은 공통적으로 학업성취를 정적으로 예측하고 있었다. 또한 자존감이 높고 우울이 낮은 경우 중학생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안지혜, 2016), 자존감은 전반적인 삶의 질과도 정적인 관계를 보이고 있다(한상숙, 김경미, 2006). 외국의 연구에서도 자존감이 주관적 안녕감의 가장 중요한 예언변인이라는 결과(Campbell, 1981)와, 문화적 차이는 존재하나 자존감이 여타의 심리적 특성(예: 낙관성, 유능감 등)보다 더 크게 행복을 설명한다는 결과(Diener & Diener, 1995)가 보고되었다.

한편, 삶의 만족과 또래관계, 자존감 변인의 인과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실시된 연구결과들에 따르면, 긍정적 경험과 삶의 만족이 바람직한 결과를 이끈다(상향이론)는 근거도 존재한다. 먼저, 행복이 여러 변인들에 미치는 인과적 영향을 메타분석한 Lyubomirsky, King과 Diener(2005)는 삶의 만족, 장/단기적 긍정적 정서가 높아지면 대인관계(친구, 동료, 이웃, 지인 등)가 확장되고 대인관계의 질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이는 Fredrickson(1998, 2001)이 제시한 긍정적 정서의 확장-형성이론(broaden-and-build theory of positive emotions)과도 연결되는데, 만족감과 이에 수반되는 긍정적 정서는 각종 영역에서 다양한 활동을 확장시켜 신체적, 지적, 사회적 자원을 형성하기 때문이라는 주장과도 일맥상통한다. 따라서 삶에 만족할수록 타인(또래)과의 활동을 더 많이 선택하고 그로 인해 사회적 자원을 보다 더 축적할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구재선(2009)은 초기시점의 삶의 만족(생활만족)이 각각 4개월 후와 3년 뒤의 자존감에 영향을 주었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구체적으로 중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2회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생활만족은 1차시점의 심리적 자원(낙관주의와 자존감)을 통제하더라도 2차시점의 심리적 자원을 정적으로 예측하였으며, 중2~고2까지의 종단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2시점의 생활만족이 높을수록 자존감이 더 많이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이에 따라서 삶의 만족도가 이후의 자존감을 유의하게 예측할 것이라는 가설을 세워 볼 수 있다.

선행연구들에 의해 삶의 만족, 또래애착과 자존감에 대한 관계들을 살펴보았지만, 아직까지 세 변인들을 종합하여 인과관계를 검증한 연구들은 부족한 편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반복 측정된 변인들을 활용하여 이 변인들의 시간에 따른 안정성과 서로 간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중학교 1학년의 또래애착은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의 자존감과 삶의 만족을 예측하는가?

둘째, 중학교 1학년의 자존감은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의 또래애착과 삶의 만족을 예측하는가?

셋째, 중학교 1학년의 삶의 만족은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의 또래애착과 자존감을 예측하는가?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이 연구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KCYPS,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중1 패널자료를 사용하였다. 이 자료는 층화다단계집락표집 방법으로 16개 시도를 시지역과 군지역으로 구분한 후 지역적 근접성을 기준으로 총 27개의 집락으로 나누고, 78개의 표본학교를 추출하여 중학교 1학년 2,351명을 대상으로 하여 조사가 시작된 자료이다. 1차년도를 기준으로 2,351명 중 남학생이 1,176명(50%), 여학생이 1,175명(50%)이다. 이 연구에서는 중학교 패널의 1차년도(2010년), 3차년도(2012년), 5차년도(2014년) 자료에서 연구변인들(또래애착, 자존감, 삶의 만족)을 추출하여 사용하였다.

2. 연구변인

1) 또래애착

패널자료에서 또래애착은 Armsden과 Greenberg(1987)가 제작한 부모또래애착 척도(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이하 IPPA) 총 25문항 중 일부를 수정하여 측정되었다. 이 척도는 원래 의사소통(예: '내 친구들은 내가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인다.'), 신뢰(예: '내 친구들은 나를 잘 이해해준다.'), 소외(예: '나는 지금의 친구들 대신 다른 친구들을 사귀고 싶다.')의 3가지 하위요인으로 구분되어 있고, 각 요인에 3문항씩 총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는 리커트 4점 척도(1=매우 그렇다 ~ 4=전혀 그렇지 않다)로,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에 대한 애착의 정도가 높다는 것을 뜻한다(의사소통 및 신뢰 문항의 경우 역산함). 또래애착의 총점을 나타내는 전체 척도로서 1차, 3차, 5차년도 각각의 내적일치도(Cronbach's α)는 .816 .797 .833이

었다. 또래애착의 하위요인별 내적일치도는 의사소통은 1차, 3차, 5차 각각 .758, .823, .782, 신뢰는 .753, .787, .816, 소외는 .627, .765, .716이었다.

2) 자존감

패널자료에서 자존감은 Rosenberg(1965)의 자존감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되었다. 이는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자기보고식 검사로 긍정적 자존감 5개 문항(예: '나는 내가 장점이 많다고 느낀다.'), 부정적 자존감 5개 문항(예: '때때로 나는 내가 쓸모없는 존재로 느껴진다.')으로 구성되어 전체는 10문항이다. 이 척도는 리커트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긍정적 자존감의 5개 문항은 역산하여 사용하였다. 8번 문항('나는 내 자신을 좀 더 존경할 수 있으면 좋겠다')은 선행연구들(김선숙, 최희철, 2013; 이자영, 남숙경, 이미경, 이지희, 이상민, 2009; 최희철, 2015)에서 나타난 결과들과 마찬가지로 교정된 문항-총점 상관관이 유의하지 않아 제외하였다. 따라서 이 척도의 점수가 높으면 자신의 가치, 유능성 등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지각한다는 것을 뜻한다. 1차, 3차, 5차년도 각각의 내적일치도(Cronbach's α)는 .873, .847, .878이었다.

3) 삶의 만족

삶의 만족은 3개의 문항으로 측정되었다. 이 척도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느끼는 즐거움의 정도('나는 사는 게 즐겁다'), 걱정거리의 정도('나는 걱정거리가 별로 없다'), 삶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정도('나는 내 삶이 행복하다고 생각한다')를 묻는 3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3문항 모두 역산). 이 척도 역시 리커트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삶에 대해 만족감이 높다는 것을 뜻한다. 1차, 3차, 5차년도 각각의 내적일치도(Cronbach's α)는 .814, .815, .780이었다.

3. 분석방법

이 연구에서는 한국아동청소년데이터 아카이브 홈페이지(<http://archive.nypi.re.kr/>)에서 한국아동청소년 중1 패널자료를 다운로드 받아 분석하였다. 먼저 SPSS 15.0 for Windows Version을 이용하여 또래애착, 자존감, 삶의 만족의 기술통계와 내적일치도를 산출하였다. 자료가 구조방정식 모형을 분석하기 위한 정상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측정변인들의 왜도와 첨도를 살펴보았다(부록 1). 각 변인들의 왜도와 첨도가 각각 절대값 2와 4에 가까울 경우 정상성에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는데, 왜도와 첨도를 살핀 결과 2와 4에 가까운 값이 없었다.

이 연구는 중1 시점(1차년도)과 중3 시점(3차년도) 사이의 2년 간격, 그리고 중3 시점(3차년도)와 고2 시점(5차년도) 사이의 2차년도 간격에서 또래애착, 자존감, 삶의 만족 사이의 종단적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자기회귀 교차지연 효과 모형(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ing)을 적용한 구조방정식 모형을 분석 프로그램인 Amos 7.0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검증하였다.

첫째, 자료는 상관행렬, 공변량행렬이 아닌 원자료를 직접 사용하였다. 이 때 결측치의 처리는 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FIML) 추정방법을 사용하였다. 이 방법은 결측치가 있는 자료라도 더욱 정확하게 미지수를 추정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이다(Arbuckle & Wothke, 1999).

둘째, 동일 잠재변인에 대한 동일 측정변인의 오차에 대한 상관을 허용하였다. 횡단적 연구에서는 오차항 사이에 상관관계를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동일한 측정변수를 여러 시점에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종단자료의 경우에, 한 측정변인(예: 중1 시점 또래애착 첫 번째 측정변인)의 측정오차 중 일부는 단순 무선오차이나, 나머지 일부는 동일 잠재변인의 측정지표로 구성된 다른 측정변인들(예: 중1 시점 또래애착 두 번째 측정변인)과 공유되지 않는 체계적인 변량을 갖고 있을 수 있고, 이 체계적인 변량은 다음 시점의 동일한 측정변인과 상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상관관계를 모형에서 나타내지 않으면 안정성 계수가 증가하고, 적합도 지수가 감소하는 취약점이 나타날 수 있다(Pitts, West, & Tein, 1996).

셋째, 종단연구에서 잠재변인들을 반복측정하게 되면 변인들의 개념이 시간의 경과함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구인을 측정한다는 구인 동일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구인 동일성은 형태 동일성, 약한 구인 동일성(측정 동일성), 강한 구인 동일성, 엄격한 구인 동일성의 순으로 점진적으로 검증되며 후자로 올수록 엄격한 검증이다. 잠재변인들 사이의 구조모형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약한 구인 동일성이 우선적으로 성립하여야 한다(Hair, Black, Babin, Anderson, & Tatham, 2006). 측정 동일성이 검증되기 위해서는 측정모형에서 동일화 제약을 가하지 않은 기저모형에 비하여, 각 시점의 잠재변인에서 측정변인으로 이르는 동일한 경로에 동일화 제약을 가한 모형의 적합도 지수가 기저모형에 비해 의미 있을 정도로 나빠지지 않으면 된다. 이 연구에서는 구조모형을 검증하기 전에 측정 동일성을 확인하였다.

또래애착, 자존감, 삶의 만족의 구성개념이 중1, 중3, 고2 시점에서 동일한 의미를 갖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측정 동일성 분석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먼저 잠재변인에서 측정변인에 이르는 요인경로계수들을 자유롭게 추정한 모형을 기저모형으로 설정하였다. 이어 한 시점의 잠재변인(예: 1차년도의 또래애착)에서 각각의 측정변인으로 가는 경로계수가 다른 시점(예: 3차년도, 5차년도)의 동일한 잠재변인(예: 3차년도의 또래애착, 5차년도의 또래애착)에서 각각의 측정변인으로 가는 경로계수의 크기가 다르지 않다는 제약을 가한 모형을 측정 동일성 모형으로 설정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저모형과 측정 동일성 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하였으며, 두 모

형에서 적합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을 경우 측정 동일성이 확보된 것으로 간주하였다.

넷째, 측정 동일성을 확인한 후 구조모형을 검증하였다. 구조모형 검증 또한 순차적으로 이루어졌다. 먼저 동일한 변인 사이의 종단적 관계를 나타내는 자기회귀계수(안정성계수)가 동일한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먼저 안정성계수 동일성 모형을 검증하였다. 안정성계수 동일성 모형은 측정 동일성 모형과 비교하였으며, 적합도에서 차이가 없을 경우 시간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자기회귀계수들에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이어 잠재변인들 사이의 교차지연 효과가 동일한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동일한 교차지연효과 경로들 사이에 그 효과 크기가 동일하다는 제약을 가하였다.

다섯째, 모형의 적합도 평가와 모형비교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Hair 등(2006)은 사례수가 250명 이상이고 측정변인의 수가 12개에서 30개 미만일 때 RMSEA와 CFI를 조합하여 보고할 경우 CFI가 .92를 넘으면서 RMSEA가 .07 또는 그 미만을 적합한 기준으로 제안하였다. 모형비교를 할 때 χ^2 차이 검증이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되나, 이 방법은 표집의 크기에 영향을 받는 취약점을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사례수가 커질수록 χ^2 차이 값이 커지기 때문에, 차이가 없는 두 모델을 차이가 있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Cheung과 Rensvold(2002)는 표집 크기에 민감하지 않은 Δ CFI값을 사용한 모형비교를 권장하였다(Δ CFI 값이 .01을 초과하여 떨어지지 않을 경우 두 모형 간에 차이가 없다고 봄).

IV. 연구결과

1. 측정모형의 검증 및 잠재변인들 사이의 상관관계

표 1에 이 연구의 측정모형 검증 결과를 제시하였다. 첫째, 이전 시점과 다음 시점의 동일한 요인계수에 대하여 동일화 제약을 가하지 않은 기저모형의 검증결과를 보면 모형적합도 지수(CFI, RMSEA) 모두에서 모형이 적합하다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둘째, 잠재변인에서 측정변인으로 이르는 동일한 경로에 동일화 제약을 가한 측정 동일성모형 검증결과를 보면 모형적합도 지수(CFI, RMSEA) 모두에서 모형이 자료에 적합하다는 결과를 보이며, Δ CFI 값 또한 .01을 초과하여 떨어지지 않아 두 모형 간에 차이가 없음을 보여준다(Cheung & Rensvold, 2002). 기저모형과 측정 동일성 모형을 비교하여 적합도 지수가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으면, 각 시점에서의 잠재변인이 유사하게 측정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1> 측정모형검증 및 모형비교 결과

Model	χ^2	df	모형비교	$\Delta\chi^2$	TLI	CFI	Δ CFI	RMSEA
1. 기저모형	1125.902	262			.967	.977		.037
2. 측정 동일성 모형	1186.106	274	1 대 2	60.204***	.966	.976	.001	.038

주. *** $p < .001$.

1. 기저모형: 이전시점과 다음시점의 동일한 요인계수에 대하여 동일화 제약을 가하지 않은 모형.
2. 측정 동일성 모형: 잠재변인에서 측정변인으로 이르는 동일한 경로에 동일화 제약을 가한 모형.

아래 표 2에서는 측정모형 검증에서 구해진 잠재변인들 사이의 상관계수를 제시하였다. 첫째, 또래애착, 자존감, 삶의 만족 변인 모두는 시점이 다른 자기 변인 간의 상관계수(예: 또래애착 1과 또래애착3)끼리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둘째, 또래애착1, 또래애착3, 또래애착5와 자존감1, 자존감3, 자존감5 사이의 상관계수들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셋째, 또래애착1, 또래애착3, 또래애착5와 삶의 만족1, 삶의 만족3, 삶의 만족5 사이의 상관계수들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넷째, 자존감1, 자존감3, 자존감5와 삶의 만족1, 삶의 만족3, 삶의 만족5 사이의 상관계수들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표 2> 잠재변인들 사이의 상관계수

	또래애착3	또래애착5	자존감1	자존감3	자존감5	삶의만족1	삶의만족3	삶의만족5
또래애착1	.439***	.349***	.506***	.399***	.280***	.460***	.295***	.233***
또래애착3		.435***	.319***	.509***	.325***	.241***	.424***	.267***
또래애착5			.237***	.309***	.555***	.194***	.259***	.469***
자존감1				.711***	.447***	.755***	.429***	.303***
자존감3					.575***	.537***	.721***	.429***
자존감5						.364***	.448***	.715***
삶의만족1							.457***	.371***
삶의만족3								.488***

주. *** $p < .001$

2. 구조모형의 검증

본 연구의 구조모형을 검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첫째, 자기회귀 경로에 동일화 제약을 가한 안정성계수 동일성 모형의 검증결과를 보면, 모형적합도 지수(CFI, RMSEA) 모두에서 모형이 적합하다는 결과를 보였다. 안정성계수 동일성 모형을 기저모형에 비교한 결과 Δ CFI 값 또한 .01을 초과하여 떨어지지 않아 두 모형 간에 차이가 없었다. 이는 각 잠재변인들의 자기회귀계수의 크기에서 차이가 없음을 뜻한다. 그림 1과 그림 2의 하단에 제시한 내생변수에 대한 설명변량

또한 연구모형과 수정모형 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연구모형과 수정모형 사이에 독립 변인들의 종속변인에 대한 설명력에서 차이가 없음을 뜻한다.

<표 3> 구조모형검증 및 모형비교 결과

Model	χ^2	df	$\Delta\chi^2(df)$	TLI	CFI	ΔCFI	RMSEA
1. 측정 동일성 모형(기저모형)	1272.254	282	60.832(3)***	.964	.973	.002	.039
2. 안정성계수 동일성 모형	1273.822	285	1.568(6)ns	.965	.973	0	.038
3. 교차지연효과 동일성 모형 (연구모형)	1278.329	291	4.507(2)ns	.966	.973	0	.038
4. 수정(최종)모형	1280.226	293		.966	.974	.001	.038

주. *** $p < .001$, ns=non-significant

1. 측정 동일성 모형: 잠재변인에서 측정변인으로 이르는 동일한 경로에 동일화 제약을 가한 모형.
2. 안정성계수 동일성 모형: 각각의 간격에서의 자기회귀 경로에 동일화 제약을 가한 모형.
3. 교차지연효과 동일성 모형(연구모형): 각각의 간격에서의 교차지연효과 경로에 동일화 제약을 가한 모형.
4. 수정모형: 연구모형에서 유의하지 않은 경로들의 크기를 0으로 고정화한 모형

둘째, 교차지연효과 동일성 모형을 검증한 결과를 보면 모형적합도 지수(CFI, RMSEA) 모두에서 모형이 적합하다는 결과를 보였다. 안정성 계수 동일성 모형과 교차지연효과 모형을 비교한 결과 ΔCFI 값 또한 .01을 초과하여 떨어지지 않아 두 모형 간에 차이가 없었다. 이는 한 변인에서 다른 변인으로 이르는 교차지연 경로에 대해 중1시점에서 중3시점에 이르는 회귀계수와 중3시점에서 고2시점에 이르는 회귀계수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뜻한다. 연구모형의 결과는 그림 1과 같다. 이 모형에서 모든 요인경로 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구조경로 계수는 삶의 만족에서 자존감으로 가는 경로의 계수들, 삶의 만족에서 또래애착으로 가는 경로의 계수들을 제외하면, 모두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셋째, 연구모형에서 유의하지 않은 구조경로 계수들[삶의 만족(중1)→또래애착(중3), 삶의 만족(중3)→또래애착(고2), 삶의 만족(중1)→자존감(중3), 삶의 만족(중3)→자존감(고2)]이 있어, 이 계수들의 크기를 0으로 고정하여 연구모형을 수정하였다. 이 수정모형을 검증한 결과를 보면 모형적합도 지수(CFI, RMSEA) 모두에서 모형이 적합하다는 결과를 보였다. 수정모형은 연구모형과 비교한 결과 ΔCFI 값 또한 .01을 초과하여 떨어지지 않아 두 모형 간에 차이가 없었다. 이는 삭제된 경로들의 값이 0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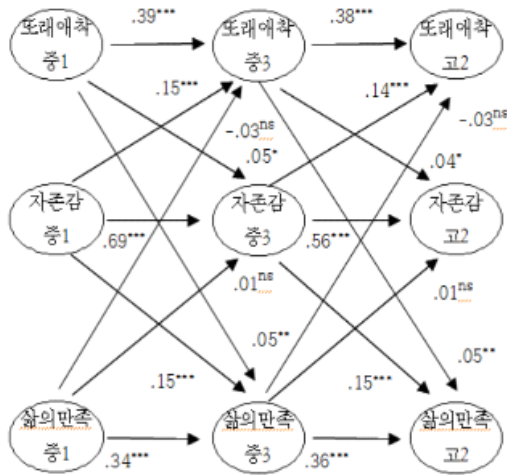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검증결과

주. * $p < .05$, ** $p < .01$, *** $p < .001$, ns = non-significant

R² 값: 또래애착 중3 = .22 또래애착 고2 = .20
 자존감 중3 = .52 자존감 고2 = .35
 삶의 만족 중3 = .24 삶의 만족 고2 =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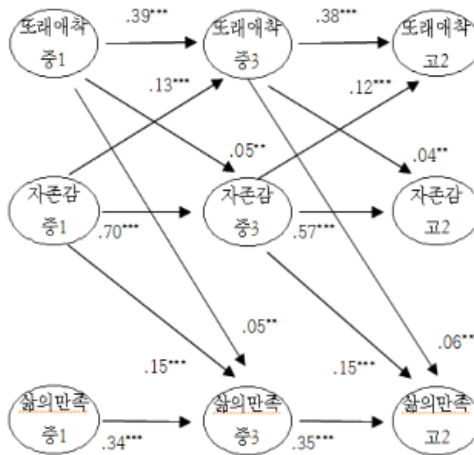


그림 2. 수정(최종)모형 검증결과

주. ** $p < .01$, *** $p < .001$

R² 값: 또래애착 중3 = .22 또래애착 고2 = .20
 자존감 중3 = .52 자존감 고2 = .35
 삶의 만족 중3 = .24 삶의 만족 고2 = .25

넷째, 최종모형에서 구해진 안정성 계수의 추정치는 그림 2에 제시되어 있다. 또래애착, 자존

감, 삶의 만족의 안정성 계수(=자기회귀 계수)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모든 $p < .001$). 표 3에 제시한 안정성 계수 동일성 모형(모형 2)이 측정 동일성 모형(모형 1)만큼 적합도가 양호하다는 결과는 또래애착, 자존감, 삶의 만족의 안정성 계수가 각각의 간격에서 그 크기가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섯째, 최종모형에서 구해진 교차지연효과 계수의 추정치는 그림 2에 제시되어 있다. 또래애착에서 자존감으로 가는 교차지연효과 계수는 이전 시점에서 또래애착이 높을수록 이후 시점의 자존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모든 $p < .01$). 또래애착에서 삶의 만족으로 가는 교차지연효과 계수는 이전 시점에서 또래애착이 높을수록 이후 시점의 삶의 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모든 $p < .01$). 자존감에서 또래애착으로 가는 교차지연효과 계수는 이전 시점에서 자존감이 높을수록 이후 시점의 또래애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모든 $p < .001$), 자존감에서 삶의 만족으로 가는 교차지연효과 계수 역시 이전 시점에서 자존감이 높을수록 이후 시점의 삶의 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모든 $p < .001$). 반면, 삶의 만족에서 또래애착 및 자존감으로 가는 교차지연효과 계수는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모든 $p > .05$).

V. 논의 및 결론

고성장 시대를 뒤로하고 저출산·고령화의 시대에 삶의 만족에 대한 관심은 주관적 안녕감(행복감)의 한 요소로 더욱 중요해지고 있고, 이같은 관심은 특히 동아시아의 일본과 한국처럼 경제부흥에 이어 저성장 시대에 고용과 노후, 복지 등에 대한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사회에서는 더욱 심각하게 다루어지고 있다(OECD, 2015). 이에 본 연구는 중1 시점(1차년도)과 중3 시점(3차년도) 사이의 2년 간격, 그리고 중3 시점(3차년도)와 고2 시점(5차년도) 사이의 2년 간격에서 또래애착, 자존감, 삶의 만족 사이의 종단적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자기회귀 교차지연 효과 모형을 적용한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얻어진 연구결과와 그 의미에 대해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또래애착, 자존감, 삶의 만족의 시간에 따른 안정성

첫째, 중학교 1학년 시기의 또래애착과 삶의 만족은 고등학교 2학년 시점까지 5년간의 시간 동안 비교적 안정적인임을 확인하였다. 두 변인들은 이전 시점과 이후 시점의 표준화 경로계수가 또래애착이 .39, .38, 삶의 만족이 .34, .35 정도를 보여, 다른 방향으로 크게 달라지지 않고 어느 정도 비슷한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연구와 유사한 분석을 실시한 김민규, 신인

영, 강미리, 김주환(2011)의 연구에서는 16주에 걸쳐 대인관계와 주관적 안녕감을 3회 반복측정한 결과, 이들 변인들은 .69에서 .83까지 비교적 높은 안정성 계수를 보였다고 한다. 이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비교적 짧은 시간(한 학기)동안 측정한 결과로, 본 연구에서 나타난 안정성 계수들 보다는 상대적 크기가 큰 것으로 미루어보아 중학교~고등학교 시기 5년간은 또래애착과 삶의 만족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도 어느 정도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청소년기에는 또래 친구들과 보내는 절대적 시간이 증가하고(황창순, 2006), 학교 내·외에서의 각종 활동참여도 늘어나면서 또래관계도 보다 폭넓어지는 시기이므로 또래애착의 변화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예컨대 김은경, 김순규(2015)의 결과에 따르면, 중학교 2학년에서 대학교 1학년까지 또래애착은 유의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삶의 만족 역시, 이 연구와 동일한 패널자료를 사용하여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의 변화를 살펴본 연구(김소영, 윤기봉, 2016)에 따르면 중학교에서는 삶의 만족도가 증가하였다가, 고등학교에 이르러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두 변인의 안정성 계수가 김민규 등(2011)의 연구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청소년기에 또래관계나 삶의 만족도가 가진 변화 가능성을 반영한다 할 수 있다.

둘째, 자존감은 이전 시점과 이후 시점의 경로계수가 .57에서 .70 정도를 보여, 또래애착, 삶의 만족보다 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서울지역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종단 연구에서 자존감의 시간에 따른 변화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 자존감은 사실상 안정적으로 나타났다는 결과(임효진, 이지은, 2016)와도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자존감은 자아에 대한 총체적이고 긍정적인 평가의 결과로, 유아기와 아동기를 거쳐 청소년기에는 개인적 성격특성(trait)의 하나로 자리잡게 되므로, 시간에 따라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또래애착보다 자존감의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는 이와 같은 결과는 Neyer와 Asendorpf(2001)의 분석에서도 나타나는데, 연구자들은 자존감을 비롯한 성격특성은 시간이 지나도 안정적인 반면 관계의 양이나 질 등은 상대적으로 덜 일관적이라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타인과 맺는 관계는 단지 두 개인 간의 상호작용을 넘어서 관계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나타난) 독특한 맥락이나 역사까지 포함하기 때문이다(Neyer & Asendorpf, 2001).

자존감은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개인 내적 요인이지만, 청소년기 전체로 보면 변화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와 같은 자존감의 안정성(stability)은 대체로 중학교보다는 고등학교시기에 더 높아진다고 하나(Trzesniewski, Donnellan, & Robins, 2003), 이 연구에서는 중3에서 고2까지 2년 동안의 경로계수(.57)는 중1에서 중3까지의 계수(.70)보다 그 크기가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학교급이 변하는 전환기에 자존감의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졌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경은, 이주리(2008)의 연구에서 중2-중3의 안정성 계수보다 중3-고1의 안정성 계수가 낮게 나타난 비슷한 결과는 이를 뒷받침한다.

2. 또래애착, 자존감, 삶의 만족의 인과적 관계

첫째, 또래애착과 자존감의 관계를 보면, 또래애착에서 자존감으로 가는 교차지연효과 계수가 정적으로 나타나, 이전 시점에서 또래애착이 높을수록 이후 시점의 자존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차지연효과 계수가 높은 편은 아니지만(.05, .04), 또래와의 관계가 좋으면 이후 자존감이 높아진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각종 횡단연구에서 자존감과 또래애착의 정적관계를 보고한 결과(Greenberg, Siegel, & Leitch, 1983; Paterson, Prior, & Field, 1995; Wilkinson, 2004)와도 일치하고, 종단연구에서 또래애착의 발달궤적을 예측하는 유의한 요인으로 자존감을 주목한 연구결과(노보람, 박세롬, 2015)와도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마찬가지로 자존감에서 또래애착으로 가는 교차지연효과 계수는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13, .12). 즉 이전 시점에서 자존감이 높을수록 이후 시점의 또래애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청소년기(15세경) 낮은 자존감이 이후(18, 21, 25세) 또래애착을 비롯한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았다는 종단연구(Boden, Fergusson, & Horwood, 2008) 결과를 뒷받침한다. Baumeister, Campbell, Krueger와 Vohs(2003)도 이와 같은 교호적 관계를 설명하였는데, 즉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낮은 사람들보다 대인관계에 있어서 신뢰감, 유능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친구나 동료에게 보다 지지를 받으며, 또한 타인에게 인정과 애정을 받는 사람들은 그러한 관계의 결과로 자신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반대로 또래에게서 거절을 당하는 경우 자존감이 낮아지는 것을 보아서도 알 수 있다(Leary & Baumeister, 2000).

이와 같이 또래애착과 자존감은 서로 교호적 관계가 있지만, 연구결과 교차지연효과 계수는 또래애착→자존감에서보다는 자존감→또래애착에서의 크기가 더 컸다. 이는 자존감과 같은 개인의 내적 특성은 (또래)관계적 측면보다 안정성이 높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 축적되고 그 효과가 커지는 반면 관계적 측면은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Neyer & Asendorpf, 2001).

둘째, 또래애착과 자존감에서 삶의 만족으로 가는 교차지연효과 계수들 역시 이전 시점에서의 변인들의 수준이 높을수록 이후 삶의 만족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삶의 만족도나 주관적 안녕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연구에서 또래나 다른 사회적 관계의 중요성을 보고한 결과(한영수, 송원영, 2012; Ma & Huebner, 2008; Pinquart & Sörensen, 2000)를 지지하는 한편, 유경훈(2013), 한상숙, 김경미(2006), Diener와 Diener(1995)등이 보고한 자존감이 삶의 만족 또는 행복을 예측한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특히 청소년기에는 자아정체감이 형성되어감에 따라, 자신의 삶의 대해 통찰하고 삶에 대해 주관적인 평가를 내리게 되는데, 이같은 과정에서 자존감은 발달과 적응을 촉진시켜 긍정적인 삶의 평가를 내리는데 도움을 주게 된다(김소영, 윤기봉, 2016).

단, 여기서도 또래애착보다는 자존감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상대적 효과가 더 컸는데, 이는 중학생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인 중 자존감이 가장 큰 예언력을 가졌다는 안지혜, 윤유동, 임희석(2016)의 연구결과와, 14세부터 28세까지의 연령대에 걸쳐 행복과 관련된 가장 강력한 예언변인이 자존감이었다는 Furnham과 Cheng(2000)의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셋째, 삶의 만족에서 또래애착 및 자존감으로 가는 교차지연효과 계수는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삶에 만족할수록 다양한 긍정적 결과(예: 긍정적 대인관계, 높은 자존감 등)들이 도출된다는 상향이론에 근거한 연구들(Headey & Veenhoven, 1989; Veenhoven, 1988)과 일관되지 않는 결과다. 그 이유로는 대부분의 상향이론이 행복 중에서도 바람직하고 긍정적인 정서의 효과만을 강조했던 데 비해(Fredrickson, 2001), 이 연구에서는 삶의 만족이라는 변인 안에 긍정정서, 부정정서, 삶의 전반적 행복도가 모두 포함되어 하위요인들의 개별적인 영향력을 정확히 확인하지 못하였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일례로 구재선(2009)의 연구에서는 행복요인 중 긍정정서가 심리자원(자존감, 낙관주의)의 원인이 된다는 결과는 도출하지 못한 대신 일반적인 생활만족도는 심리자원의 원인이 된다고 하였다. 또한 청소년기에는 학업이나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와 부모관계 혹은 가정생활에서 비롯되는 만족도 간에 영역 특수적인 차이를 보일 수 있다. 대다수 주관적 안녕감의 연구들에서 긍정정서, 부정정서, 삶의 만족(생활만족)의 세 요인을 함께 보고하였고(Diener & Lucas, 2000; Diener et al., 1999), 패널자료에서도 이를 토대로 측정된 척도를 사용하였지만, 문항 수의 한계로 이 연구에서는 부득이하게 다차원적인 삶의 만족이 아닌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의 변화와 인과관계를 살펴보았다는 것이 한계로 남는다.

3. 요약 및 결론

이 연구는 또래애착, 자존감, 삶의 만족의 안정성과 서로간의 영향력을 탐색하기 위해 종단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그간의 선행연구들에서는 횡단자료를 통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하였기 때문에 변인간의 인과관계를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2010년부터 수집된 아동청소년패널은 매년 자료가 축적되는 타당성이 높은 종단자료로 이 연구는 반복측정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삶과 관련 변인들의 인과적 관계를 최초로 추정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특히 주관적 안녕 또는 행복에 대한 오랜 논쟁인 상향, 하향이론에 근거하여 세운 가설의 검증 결과 또래애착과 자존감이 삶의 만족을 유의하게 예측하고, 그 반대의 경우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인과적으로 또래애착 및 자존감의 상승작용에 의한 결과로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결론을 내리게 한다. 그러나 청소년기 삶의 만족도의 원인이 되는 여타 중요한 혼합변인들(예: 교사관계, 학업성취)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고, 이 연구에서는 이들을 통제한 모형을 검증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또한 또래애착은 자존감과 삶의 만족을 모두 예언하는 변인으로 확인되었고, 이에 현장에서는 청소년기 또래관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청소년기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는 긍정적인 또래애착을 증진시키는 개입 프로그램이나 전략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 시기의 수련 활동, 동아리활동, 체험활동 등을 활용하여 이런 활동 중에 건강한 또래관계나 사회적 관계 기술 등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보다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관련하여, 의도적이고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일시적으로 상황을 바꾸는 것보다 행복을 지속하는데 더 효과가 있었다는 연구(Sheldon & Lyubomirsky, 2006)를 참고하여 청소년들에게 자발적으로 여러 가지 활동에 참여하는 기회를 주는 것도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청소년기 자존감의 중요성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자존감이 높으면 또래관계를 형성하기에도 유리하고, 자신의 삶에서 행복하기에도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개인적 특성으로서의 자존감이 또래관계나 행복을 예언한다는 점은 아동 및 청소년의 발달에서 내적 자원으로 기능할 수 있는 긍정적인 자존감의 증진에 초점을 두어야 함을 시사한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 시기에 자존감의 안정성이 그 이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는데, 고등학교에 진학함에 따라 달라진 주변의 환경적 변화에 의해 보다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 이 때 특히 외적, 상황적 평가에 큰 영향을 받는 불안정한 자존감(fragile self-esteem)을 가진 청소년들에게는 차별화된 상담이나 지도가 요구된다.

이 연구의 한계점 및 이를 바탕으로 후속연구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또래애착, 자존감이 삶의 만족에 선행한다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변인들 간의 이러한 관계가 성별이나 학교급 등에 따른 개인차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나타나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특히 청소년기에는 또래애착에 대해 여학생과 남학생의 지각이 차이를 보일 수 있으므로(김은경, 김순규, 2015), 다집단 분석 등을 통해 후속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이 연구에서는 또래애착과 자존감, 삶의 만족간의 선행관계에 대한 가설검증에 초점을 두었지만, 후속연구에서는 각 변인들의 시간에 따른 변화(증가 및 감소)의 요인에 대한 연구 및 이를 근거로 인과관계에 대한 탐색이 이어질 필요가 있다. 가령 동일한 패널자료를 사용한 분석 결과를 보면 삶의 만족도는 시간에 따라 감소(임선아, 임효진, 2015)하고 있었고, 반면 또래애착은 시간에 따라 증가(노보람, 박세롬, 2015)하고 있었다. 특히 청소년기 삶의 만족도가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점차 낮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또래애착과 자존감이 이러한 개인적 발달궤적의 차이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고, 이미 밝혀진 또래애착 혹은 자존감의 긍정적 효과가 어떻게 하면 삶의 만족을 덜 낮아지게 하는 완충요소로 활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실제적 함의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여타의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이용한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이 연구의 결과 역시 다분히

학생들의 부정확한 주관성이 개입될 여지가 많다. 응답자의 익명성 보장 등 자기보고식 설문이지는 장점(Dicke, Parker, Marsh & Kunter, 2014)에도 불구하고, 특히 또래애착 문항의 경우 신뢰('내 친구들은 나를 잘 이해해준다.')나 소외('친구들은 요즘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모른다.')의 일부 문항들은 보다 객관적인 관찰, 평정자료와 비교할 경우 자기보고식의 응답결과와 차이를 보일 수 있다. 또한 패널자료에서 또래애착 변인은 부모또래애착 척도(IPPA)의 문항을 일부 이용하게 되었는데, 최근 연구들에서는 이 척도가 또래애착 자체보다는 또래집단과의 전반적인 관계 경험과 질만을 측정하고 있다는 지적(최영희, 김민선, 서영석, 2012; Wilkinson, 2008)을 받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한계점을 고려하여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타당화된 척도를 사용하여 모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곽수란(2006). 청소년의 학교적응도 분석. **교육사회학연구**, 16(1), 1-26.
- 구재선(2009). 행복은 심리적 자원을 형성하는가.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3(1), 165-179.
- 구재선, 김의철(2006). 심리적 특성, 생활경험, 행복의 통합적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0(4), 1-18.
- 구지은(2000). 자아탄력성, 긍정적 정서 및 사회적 지지와 청소년의 가정생활 적응 및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 김경숙, 박미금(2000). 중·고등학생의 스트레스와 생활만족 및 그 관련변인 연구. **한국가정교육학회지**, 12(1), 33-45.
- 김민규, 신인영, 강미리, 김주환(2011). 자기회귀교차지연 모형을 통한 대인관계와 주관적 안녕감의 인과관계 검증. **한국HCI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서울: 한국HCI학회.
- 김선숙, 최희철(2013). 노인의 자기존중감과 우울의 상호순환적 종단관계. **상담학연구**, 14(4), 2417-2430.
- 김소영, 윤기봉(2016). 잠재성장모형을 이용한 청소년 삶의 만족도 변화 추정: 변화에 있어서의 개인차에 대한 요인 검증. **한국청소년연구**, 27(2), 271-296.
- 김은경, 김순규(2015). 선형모형을 적용한 청소년기 애착의 변화양상에 관한 종단연구. **학교사회복지**, 32, 357-384.
- 김희진, 최장원, 이지현, Atteraya, S. (2012). 청소년의 대인관계와 학교생활적응: 자존감의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 **유라시아연구**, 9(1), 273-298.
- 노보람, 박새롬(2015). 청소년의 또래애착 발달과정과 예측요인: 성별에 따른 다집단 분석. **제5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학술대회 자료집**.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류경희(2003). 청소년의 학교생활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관련 변인. **대한가정학회지**, 41(12), 147-168.
- 민병수(1991). 학교생활적응과 자아개념이 학업성적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 박미란, 이지연(2007). 또래애착이 초기청소년기 우정관계의 자기노출에 미치는 영향: 자존감과 수치심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상담연구**, 15(2), 81-95.
- 박병선, 배성우(2012). 대인관계와 학교성적이 학교청소년의 주관적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성별 및 학교급별 비교. **청소년복지연구**, 14(3), 215-238.
- 박은민(2010). 청소년의 교사애착, 또래애착, 모애착과 자존감 및 우울감이 학교생활 적응에 미

- 치는 영향. **한국놀이치료학회지**, 13(3), 75-88.
- 최영희, 김민선, 서영석(2012). 한국판 청소년또래애착 척도 타당화 연구: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4(2), 273-296.
- 안지혜(2016).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데이터분석.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 안지혜, 윤유동, 임희석(2016).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데이터를 이용한 중학생 삶의 만족도 분석. **디지털융복합연구**, 14(2), 197-208.
- 염유식, 김경미, 이은주, 이승원(2015). 2013년도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국제비교연구 조사결과보고서. 서울: 한국방정환재단.
- 옥정(1998). 청소년기 애착안정성과 우울성향의 관계: 지각된 유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유경훈(2013).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적응, 자존감, 삶의 만족도의 구조적 관계.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4(6), 2700-2706.
- 이경은(1998). 학교생활부적응 유형과 요인에 따른 학교사회사업서비스 욕구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개발연구**, 4(3), 276-305.
- 이경은, 이주리(2008). Cross-lagged Autoregressive Model을 적용한 청소년의 학업성취와 자아존중감 간 종단관계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6(6), 135-141.
- 이석형(2007). 청소년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 **사회복지개발연구**, 13(1), 55-76.
- 이자영, 남숙경, 이미경, 이지희, 이상민(2009). Rosenberg의 자아존중감 척도: 문항수준 타당도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1(1), 173-189.
- 이진아(2007). 한부모가정 아동이 지각한 양육태도, 사회적지지 및 아동의 자아탄력성이 심리적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 임미향, 박영신, 김의철(2006). 초등학생의 삶의 질에 대한 분석: 사회적 지원, 자기효능감, 학업성취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아동교육**, 15(1), 53-67.
- 임선아, 임효진(2015). 부모의 성취압력이 지각된 유능감을 매개로 청소년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육심리학회 3차 학술대회 자료집**. 서울: 한국교육심리학회.
- 임효진, 이지은(2016). 긍정적 자기참조요인과 자기통제가 학업성취도의 종단적 변화에 미치는 영향. **제2회 서울교육종단연구 학술대회 논문집**. 서울: 서울시교육연구정보원.
- 장휘숙(1997). 청년기의 애착과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의 관계. **인간발달연구**, 4(1), 88-106.
- 주은지(2010). 한국청소년과 미국청소년의 부모애착과 또래애착 비교.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8(6), 125-142.
- 최희철 (2015). 아동, 성인, 노인의 낮은 자기존중감의 3년 뒤의 우울과 공격행동에 대한 전망적 효과에 관한 연구. **상담학연구**, 16(1), 305-335.

- 최희철, 황매향(2010). 학업성취와 삶의 만족 사이의 자기회귀 교차지연 효과 검증: 중학교 2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 **상담학연구**, 11(3), 1255-1270.
- 통계청(2015). 2015 청소년 통계. 2015.4.28. 보도자료.
- 한상숙, 김경미(2006).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요인.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6(1), 37-44.
- 한영수, 송원영(2012). 또래애착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 연차 학술발표 논문집**. 서울: 한국심리학회.
- 한중혜, 박성옥, 이영환(1997). 친구, 가족, 교사의 사회적 지지 및 자아가치감에 따른 아동의 스트레스. **한국생활과학회지**, 6(1), 15-27.
- 황창순(2006). 초기 청소년기의 부모 및 또래애착과 애착의 변화. **한국청소년연구**, 17(1) 201-225.
- Arbuckle, J. L., & Wothke, W. (1999). *AMOS 4.0 user's guide* Chicago: Small Waters.
- Argyle, M. (1999). Causes and correlates of happiness. In D. Kahneman, E. Diener, & N. Schwarz (Eds.), *Well-being: The foundations of hedonic psychology* (pp. 353-373).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 Armsden, G. C., & Greenberg, M. T. (1987).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5), 427-454.
- Barnow, S., Lucht, M., & Freyberger, H. J. (2005). Correlates of aggressive and delinquent conduct problems in adolescence. *Aggressive Behavior*, 31(1), 24-39.
- Bartholomew, K., & Horowitz, L. M. (1991). Attachment styles among young adults: A test of a four-category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2), 226-244.
- Batgos, J., & Leadbeater, B. J. (1994). Parental attachment, peer relations, and dysphoria in adolescence. In M. B. Sperling, W. H. Berman (Eds.), *Attachment in adults: Clinical and developmental perspectives* (pp. 155-178). New York: Guilford Press.
- Baumeister, R. F., Campbell, J. D., Krueger, J. I., & Vohs, K. D. (2003). Does high self-esteem cause better performance, interpersonal success, happiness, or healthier lifestyles? *Psychological Science in the Public Interest*, 4(1), 1-44.
- Bowlby, J. (1980). *Attachment and loss* (Vol. 3). New York: Basic Books.
- Boden, J. M., Fergusson, D. M., & Horwood, L. J. (2008). Does adolescent self-esteem predict later life outcomes? A test of the causal role of self-esteem.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20, 319-339.
- Campbell, A. (1981). The sense of well-being in America: Recent patterns and trends. New

York: McGraw-Hill.

- Cheung, G. W., & Rensvold, R. B. (2002). Evaluating goodness-of-fit indexes for testing measurement invarianc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9*, 233-255.
- Demo, D. H., & Savin-Williams, R. C. (1983). Early adolescent self-esteem as a function of social class: Rosenberg and Pearlin revisited.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8*(4), 763-774.
- Dicke, T., Parker, P. D., Marsh, H. W., & Kunter, M. (2014). Self-efficacy in classroom management, classroom disturbance, and emotional exhaustion: A moderated mediation analysis of teacher candidate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106*(2), 569-583.
- Diener, E. (1994). Assessing subjective well-being: Progress and opportunities. *Social Indicators Research, 31*(2), 103-157.
- Diener, E., & Diener, M. (1995). Cross-cultural correlates of life satisfaction and self-estee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 653-663.
- Diener, E., Suh, E. M., Lucas, R. E., & Smith, H. E. (1999). Subjective well-being: Three decades of progress. *Psychological Bulletin, 125*, 276-302.
- Diener, E., & Lucas, R. E. (2000). Explaining differences in societal levels of happiness: Relative standards, need fulfillment, culture, and evaluation theory.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 41-78.
- Fredrickson, B. L. (1998). What good are positive emotions?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2*, 300-319.
- Fredrickson, B. L. (2001). The role of positive emotions in positive psychology. *American Psychologist, 56*, 218-226.
- Furnham, A., & Cheng, H. (2000). Lay theories of happiness.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 227-246.
- Greenberg, M. T., Siegel, J. M., & Leitch, C. J. (1983). The nature and importance of attachment relationships to parents and peers during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2*(5), 373-386.
- Hair, J. F., Black, W. C., Babin, B. J., Anderson, R. E., & Tatham, R. L. (2006). *Multivariate data analysis*. New Jersey: Pearson Prentice Hall.
- Harter, S. (1983). Development perspectives on the self-system. In P. H. Mussen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4* (pp. 275-385). New York: Wiley.
- Hazen, C., & Shaver, P. R. (1987). Romantic love conceptualized as an attachment proc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 511-524.

- Headey, B., & Veenhoven, R. (1989). Does happiness induce a rosy outlook? In R. Veenhoven (Ed.), *How harmful is happiness? Consequences of enjoying life or not?* (pp. 106-127). Rotterdam, The Netherlands: University Press Rotterdam.
- Huebner, E. S., Funk, B. A., & Gilman, R. (2000). Cross-sectional and longitudinal psychosocial correlates of adolescent life satisfaction reports. *Canadia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16(1), 53-64.
- Laible, D. J., Carlo, G., & Raffaelli, M. (2000). The differential relations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to adolescent adjustment.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9(1), 45-59.
- Lapsley, D. K., Rice, K. G., & Fitzgerald, D. P. (1990). Adolescent attachment, identity, and adjustment to college: Implications for the continuity of adaptation hypothesis.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68(5), 561-565.
- Leary, M. R., Baumeister, R. F. (2000). The nature and function of self-esteem: Sociometer theory.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32, 1-62.
- Lyubomirsky, S., King, L., & Diener, E. (2005). The benefits of frequent positive affect: Does happiness lead to success? *Psychological Bulletin*, 131(6), 803-855.
- Ma, C. Q., & Huebner, E. S. (2008). Attachment relationships and adolescents life satisfaction: Some relationships matter more to girls than boys. *Psychology in the Schools*, 45(2), 177-190.
- Neyer, F. J., & Asendorpf, J. B. (2001). Personality-relationship transaction in young adulthoo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1(6), 1190-1204.
- OECD (2015). *How's life? 2015: Measuring well-being*. OECD Publishing, Paris.
- Paterson J. E., Prior, J., & Field, J. (1995). Adolescent attachment to parents and friends in relation to aspects of self-esteem.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4, 365-376.
- Pinquart, M., & Sörensen, S. (2000). Influences of socioeconomic status, social network, and competence on subjective well-being in later life: A meta-analysis. *Psychology and Aging*, 15(2), 187-224.
- Pitts, S. C., West, S. G., & Tein, J-Y. (1996). Longitudinal measurement models in evaluation research: Examining stability and change. *Evaluation and Program Planning*, 19, 333-350.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heck, D. T. (2005). Perceived parental control processes, parent-child relational qualities, and

- psychological well-being in Chinese adolescents with and without economic disadvantage. *The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66(2), 171-188.
- Sheldon, K. M., & Lyubomirsky, S. (2006). Achieving sustainable gains in happiness: Change your actions, not your circumstances.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7, 55-86.
- Trzesniewski, K. H., Donnellan, M. B. & Robins, R. (2003). Stability of self-esteem across life spa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4(1), 205-220.
- Veenhoven, R. (1988). The utility of happiness. *Social Indicators Research*, 20, 333-354.
- Weiss, R. S. (1982). Attachment in adult life. In C. M. Parkes & J. Stevenson-Hinde (Eds.), *The place of attachment in human behavior* (pp. 171-184). New York: Basic Books.
- Wilkinson, R. B. (2004). The role of parental and peer attachment in the psychological health and self-esteem of adolescen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3(6), 479-493.
- Wilkinson, R. B. (2008). Development and properties of the adolescent friendship attachment scal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t*, 37, 1270-1279.

* 논문접수 2016년 5월 2일 / 1차 심사 2016년 6월 9일 / 2차 심사 2016년 8월 10일 / 게재승인 2016년 9월 7일

* 황매향: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교육학과에서 교육상담 전공으로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경인교육대학교 교육학과 부교수로 재직 중이며, 주 관심사는 아동 및 청소년의 학업문제, 취약집단 청소년의 발달, 질적 종단연구 등이다.

* E-mail: maehyang@ginue.ac.kr

* 최희철: 대구교육대학을 졸업하고 단국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에서 상담심리 전공으로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광주여자대학교 상담심리학과에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 관심사는 애착기반 심리상담 및 종단연구, 애착외상 회복을 위한 정신화 상담, 자존감의 종단적 안정성과 변화 연구 등이다.

* E-mail: chc0605@kwu.ac.kr

* 임효진: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교육학과에서 교육상담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에서 교육심리 전공으로 석사과정을 수료한 후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에서 교육심리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서울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 조교수로 재직 중이며, 주 관심사는 학습동기, 학업성취의 변화 및 종단연구 방법론 등이다.

* E-mail: hyolim@snu.ac.kr

Abstract

A Longitudinal Relationship among Adolescents' Peer Attachment, Self-esteem, and Life Satisfaction

Hwang, Mae Hyang*

Choi, HeeCheol**

Lim, Hyo Jin***

This study examined the longitudinal relationship among adolescents' peer attachment, self-esteem, and life satisfaction. Using the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tudy (KCYPs) data, we collected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responses from 7th, 9th, and 11th graders. Autoregressive Cross-Lagged (ARCL) modeling was performed to test a longitudinal and reciprocal relationship among variables of interest. Results showed that peer attachment, self-esteem, and life satisfaction were relatively stable over time. Also, cross-lagged coefficients from peer attachment to self-esteem and life satisfaction were found to be statistically positively significant, meaning that adolescents' peer attachment causally affected their self-esteem and life satisfaction. Similarly, cross-lagged coefficients from self-esteem to peer attachment and life satisfaction were found to be significant and positive, reflecting that adolescents' self-esteem led to their peer attachment and life satisfaction. However, the cross-lagged effects of life satisfaction on peer attachment or self-esteem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sum, adolescents' peer attachment and self-esteem were found to have causal effects on their later life satisfaction.

Key words: Adolescents, Peer Attachment, Self-esteem, Life Satisfaction,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ing,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 First author, Associate Professor, Gyeongi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 Second author, Assistant Professor, Kwangju Women's University.

*** Corresponding author, Assistant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